

다해·제2304호
주님 성탄 대축일
2024년 12월 25일



추천주보



 페트루스 크리스토루스
《그리스도의 탄생》
1452년, 피렌체에 유채
그뢰닝게 미술관, 벨기에



목차

02 추천주교 성탄 메시지
사랑을 담은 미소는 세상을 평
화롭게 합니다.

03 말씀의 향기
참 빛이신 예수님

04 전례 안내
주님 성탄 대축일 낮 미사



QR코드로 교구소식을!
미사 중에는 자제해주세요.



천주교춘천교구
www.cccatholic.or.kr

주님 성탄 대축일 밤 미사

입당송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노라.

제1독서 이사 9,1-6

화답송

- ◎ 오늘 우리 구원자 주 그리스도 태어나셨다.
-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 주님께 노래하여라, 온 세상아. 주님께 노래하여라, 그 이름 찬미하여라. ◎
- 나날이 선포하여라, 그분의 구원을. 전하여라, 겨레들에게 그분의 영광을, 모든 민족들에게 그분의 기적을. ◎
-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여라. 바다와 그 안에 가득 찬 것들은 소리쳐라. 들과 그 안에 있는 것도 모두 기뻐 뛰고, 숲속의 나무들도 모두 환호하여라. ◎
- 그분이 오신다. 주님 앞에서 환호하여라. 세상을 다스리러 그분이 오신다. 그분은 누리를 의롭게, 민족들을 진리로 다스리신다. ◎

제2독서 티토 2,11-14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구원자 주 그리스도 태어나셨다. ◎

복음 루카 2,1-14

영성체송 말씀이 사람이 되셨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네.



2024년 춘천주교 성탄 메시지

사랑을 담은 미소는 세상을 평화롭게 합니다.

횡 단보도를 건너는 아이를 보고 황급하게 화물차가 급정거를 하게 됩니다. 길을 다 건너던 아이가 화물차를 올려다보며 기사를 향해 “감사합니다” 하고 웃으며 인사를 하자 운전기사는 경고음을 울리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고 다음에는 꼭 횡단보도에서 천천히 운행을 하고 아이처럼 웃으면서 사람들에게 미소를 지어야 하겠다는 결심을 합니다.

사랑을 담은 미소는 가정을 평화롭게 하고, 서로 모르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미소는 사회를 웃게 만듭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미소와 함께 경청한다면 우리 사회는 평화로울 것이고, 그 평화는 우리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킬 것이며 온 세상의 평화에 이바지할 것입니다.

지내온 한 해의 시간을 돌아보며 미소를 지읍시다. 또 다가올 을사년 한 해를 미소로 맞읍시다. 특별히 우리 신앙인은 희망의 순례라는 주제로 정기 희년을 맞습니다. 희망은 미소를 짓게 만듭니다. 소외된 이들, 청소년들, 어르신들에게 미소를 지으며 희망의 순례에 기쁘게 참여합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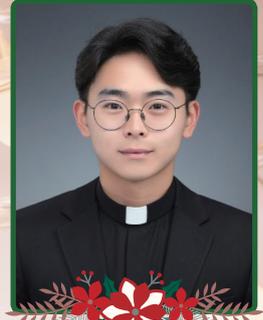
이 세상의 평화를 위해 구유에 태어나실 아기 예수님의 축복과 미소가 여러분과 가정에 가득하시길 빕니다.

사랑을 담은 미소는 우리 세상을 평화롭게 합니다.

2024년 주님 성탄 대축일에
춘천주교 김 주 영 시몬

인류를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한 사랑과 연민으로 지켜보며 아파하시는 하느님의 눈빛을 진심으로 찾고 읽어내야 합니다.

참 빛이신 예수님



박상진 요셉 신부
국내 연학 겸 성소국 협력 사제

아기 예수님의 성탄을 마음 모아 축하드립니다. 성탄의 기쁨이 아무 조건 없이 온 세상 모든 곳을 덮어주는 오늘 하루가 되길 기도합니다. 더불어 인사와 축하가 닿기 어려운 누군가에게도 그 기쁨이 전해지길 빕니다. 또한 각자의 기쁨이 다른 누군가를 비추어 서로의 사랑이 되길 빕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하느님을 알아가고 만날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는 누군가, 혹 무언가에서 빛이 나는 것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단순히 빛나는 켠다 켠 불이 아니라, 환하게 빛을 발하는 느낌 정도를 떠올려보면 좋겠습니다. 저의 경우 누군가 또는 무언가가 그 모습 자체로 아름다울 때나 오묘한 사랑을 전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그 말을 들었던 순간은 보통 미사를 집전했던 순간이나, 무언가를 온전히 마음으로 행했을 때였습니다. 생각해 보면 진심으로 행하는 참 사람의 모습과 그 순간에 걸맞은 하느님의 뜻을 행할 때라고 말해보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라는 요한 복음서를 여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 안에서 ‘가운데’ 라는 말씀에 대해 머무르게 됩니다.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는 다음과 같은 순간에 ‘가운데’ 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간음하다 붙잡힌 여인이 군중 한 가운데 서서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요한 8,3), 제자들이 호수 한가운데에서 물 위를 걷는 예수님을 체험한 순간(마르 6,47), 회당에서 더러운 영을 쫓아내실 때 마귀가 치유받은 이를 한가운데에 내동댕이쳤지만 아무런 해도 끼치지 못했던 순간(루카 4,35) 등입니다. 여기서 새겨야 할 점은 그 한 가운데에는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운데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중심 또는 가장 깊은 곳에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참 빛으로,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 세상에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시니 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누군가 혹은 무언가에서 빛이 났던 이유는 우리 안에서 이미 빛나고 있던 예수님의 빛에 우리가 하나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빛을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의 은총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일상 곳곳에서 어느 곳에 반사된 빛을 체험한 순간은 참으로 찰나입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우리 삶의 여정에 찰나인 순간들이 우리를 살아내게 한다는 것을 믿고 고백해 봅니다.

그러한 의미를 담아, 다시 한번 아기 예수님의 성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렇게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충만함에서 우리 모두 은총에 은총을 받았다.” (요한 1,16)



샤워할 때 물 아끼고 샤워시간 줄이기

**주님 성탄 대축일 낮 미사****입당송**

우리에게 한 아기가 태어났고,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네.
왕권이 그의 어깨에 놓이고, 그의 이름은 놀라운 경륜가라 불리리라.

제1독서

이사 52,7-10

화답송

- ◎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온 세상 땅끝마다 모두 보았네.
○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 그분이 기적들을 일으키셨네.
그분의 오른손이, 거룩한 그 팔이 승리를 가져오셨네. ◎
○ 주님은 당신 구원을 알리셨네.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를 드러내셨네.
이스라엘 집안을 위하여, 당신 자애와 진실을 기억하셨네. ◎
○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온 세상 땅끝마다 모두 보았네.
주님께 환성 올려라, 온 세상아. 즐거워하며 환호하여라, 찬미 노래 불러라. ◎
○ 비파 타며 주님께 찬미 노래 불러라. 비파에 가락 맞춰 노래 불러라.
쇠 나팔 뿜 나팔 소리에 맞춰, 임금이신 주님 앞에서 환성 올려라. ◎

제2독서

히브 1,1-6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거룩한 날이 우리에게 밝았네. 민족들아, 어서 와 주님을 경배하여라.
오늘 큰 빛이 땅 위에 내린다. ◎

복음

요한 1,1-18 <또는 1,1-5.9-14>

영성체송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온 세상 땅끝마다 모두 보았네.

**크리스마스트리에는 예수님이 없다?**

크리스마스트리에는 별은 있지만, 별 아래 태어나 계실 아기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종종 나무 아래에 구유 등의 성물을 두기도 합니다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아기 예수님의 성상 등을 두지 않는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크리스마스트리에는 아기 예수님 성상을 두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크리스마스트리, 푸른 잎을 지닌 나무가 그 자체로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크리스마스트리에는 전통적으로 두 가지 형태의 열매를 장식합니다. 첫 번째로 빨간 구슬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 죽음이 찾아왔음을 기억하게 해주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하얀 구슬은 '생명의 빵'(요한 6,22-59)이신 예수님의 몸, 성체를 상징하는 장식입니다.